

# “부처님 법따라 자비·행복 추구”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 발표 러시아·인도·프랑스 불교 복지 환경운동 실태

구랍 24일부터 28일까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臺北) 근교에 있는 보린사(寶蓮寺)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도대회’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말레이시아,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타이완, 미국, 베트남, 인도 등 16개국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국의 불교도가 서로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류의 최대 현안인 자연 생태위

기, 전쟁과 빈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참가자는 스님, 사회활동가, 불교학자 등이었고 각 나라별로 불교현황과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마을, 불교환경교육원, 불교자원봉사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프랑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동훈 경복련운영위원장을 통해 대회에서 발표된 러시아 인도 프랑스의 불교 복지·환경운동 실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다 중요한 곳이다. 그들은 생태보호 문제에 불교가 정신적 측면과 행동덕목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도** 불교의 기원지인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 관습 때문에 지난 1천년간 불교의 불모지였다. 56년 10월 위대한 인도 민중



김 동 훈  
(경복련 운영위원장)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에는 16개국 스님·재가불자가 참여 “우리는 부처님 법 따라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17년 공산혁명 전에는 70여 개의 사원과 4만명의 스님이 있었다. 1930년대 초에 모든 절은 파괴되고 스님들은 죽거나 피신했으며, 1946년에야 두 개 사원이 다시 문을 열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했다.

지난 5년간 불교가 부흥하여 지금은 50여개의 사원과 1백만 명의 불자가 생겼고 53명의 스님이 해외유학 중이며 150여명이 국내에서 불교교육을 받고

다. 원형 사리탑 안 불단 정면 유리판에는 오색 찬란한 부처님 진신사리, 가슴존자 사리, 금강사리, 나한 사리 등이 봉안돼 참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불자들이 새벽부터 경내는 인신인해를 이뤘고, 불자 모두에게 3과씩 사리를 나눠줘 사리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3백년 전 티벳과 몽고로부터 불교가 전래됐고,

의 지도자인 암베드카르 박사(Bhimrao Ambedkar)에 의해 50만명의 불가족 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불교가 고향에 되돌아왔고 지금은 불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족 천민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독립 후 초대 법무장관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는 미신과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오랜 관습에 쩌든 인도사회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의 인도주의와 개혁정신에 감화된 서양의 불자들이 위대한 승단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모임(TBMFG)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불교를 가르치는 다르마 센터(Dharma Center)와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한 바후잔 히타이(BAHUTAN HITAY)를 설립해 운영한다. 전국 20여 개의 다르마 센터에서는 명상, 범인류적인 사랑과 친절, 기초 교리를 가르친다.

스님은 석가모니는 모든 인류의 행복과 선을 위해 태어났으며, 비폭력과 자비, 범인류적인 사랑, 불법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성이 세계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대규모의 개발과 정복은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유·선한 삶·자비심을 수행하고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국제경제 질서를 개혁한다. 참가자와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하여 세계 만방에 불법을 포교할 것과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원한다.”

### 만화 법구경

\* 성념의 장 \*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이항원

모두 2만원입니다. 요녀석 잡았다 빌 훔쳤어. 매일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네놈 것이구나. 아저씨 거기 전화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김양 무슨일이야 왜그래? 도둑놈 잡았어요. 오... 해서 주세요 잘못했어요. 너같은 놈은 혼 나봐야 해. 아... 아줌마 그 애는 도둑놈이란 말예요. 이게 갖고 싶을 말은 하지 왜 그냥 가지고 가려 했어? 자... 잘못했어요 용서 해주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게로구나. 김양아 이거 예쁘게 포장해 줘라. 아... 아줌마 그 애는 도둑놈이란 말예요.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가는 게 좋을거야. 다음에도 필요하게 있으면 애걸 하려나. 온화한 마음으로 성념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배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저런 애들은 경찰에 넘겨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 했을 텐데 따듯이 감싸줘야지. 경찰에 넘겨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냥 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도 있다고요. 그만 가서 김양도 점심이나 먹고 와. 여기서 가져간 것 모두 도로 갖고 왔나봐. 세상에... 김양 말대로 경찰에 넘겼을 물건도 아이도 다 잃을 뻔한 것 아니었어. 진실은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누가 와서 빌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결로 간다.

## 러 불자 1백만명...바이칼호 생태계 보존 앞장

## 인 사회교육센터 히타이운영 '더 나은 삶' 모색

## 프 개발·정복등 지양...생명존중 인성회복 중시

다. 원형 사리탑 안 불단 정면 유리판에는 오색 찬란한 부처님 진신사리, 가슴존자 사리, 금강사리, 나한 사리 등이 봉안돼 참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불자들이 새벽부터 경내는 인신인해를 이뤘고, 불자 모두에게 3과씩 사리를 나눠줘 사리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시아** 3백년 전 티벳과 몽고로부터 불교가 전래됐고,

있다. 불자가 많은 우란 우드(Ulan-Ude)지역에서는 병원(병상 70개, 의사 5명)을 운영하고 어린이 교육에도 관여한다. 특히 바이칼 호수(Lake Baikal)의 생태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호수는 세계 맑은 물의 20%를 저장하고 있으며, 호수 남쪽 지역에 위치한 16만5천헥타에 이르는 생물보존권에는 7백87종의 식물과 3백 종류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보호가 어느 곳보

의 지도자인 암베드카르 박사(Bhimrao Ambedkar)에 의해 50만명의 불가족 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불교가 고향에 되돌아왔고 지금은 불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족 천민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독립 후 초대 법무장관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는 미신과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오랜 관습에 쩌든 인도사회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의 인도주의와 개혁정신에 감화된 서양의 불자들이 위대한 승단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모임(TBMFG)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불교를 가르치는 다르마 센터(Dharma Center)와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한 바후잔 히타이(BAHUTAN HITAY)를 설립해 운영한다. 전국 20여 개의 다르마 센터에서는 명상, 범인류적인 사랑과 친절, 기초 교리를 가르친다.

### 대중불교는 옳지 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사회소식,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담이야기, 불교와 민속, 열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5796

###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 밀교학 입문서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단트라와 불교 단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자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술을 깨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 김인택 지음/양장/376면 값 12,000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